



1999년 7월 오리산업 브리핑

육용오리 출하일령 복경기 따라 부분적 회복

복경기로 인한 소비유통물량 증가에 따라 육용오리 출하일령이 늘어나...

- 이달 출하일령이 영호남 지역은 큰 변화 없으나 중부지역은 3~4일정도 앞당겨져 46~47일령 출하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반적 현상은 아님. 육용오리 가격은 중부 북부 3,800~4,000원선, 중부지역 4,000~4,200원선 등 약세 지속, 호남지역은 50일령 내외에서 3,800~4,200원선까지 거래가 이루어짐

육용 새끼오리값 약세에도 종오리 사육수수 감소 없다.

배합사료 생산량 역대 최고치...

- 육용오리 및 새끼오리 가격이 약세가 지속됨에도 종오리 사육수수 크게 감소되지 않음.

또한 6월 배합사료 생산량 동향에 따르면 사료 생산량은 전월대비 오히려 증가. 이는 산란중인 암컷 종오리 수수가 전월대비 약 5.5% 증가, 새끼오리 사료 생산량 역시 전월대비 2.2% 증가한 물량.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종오리, 새끼오리 입식량 오히려 증가 추세. 이로 인해 가격약세 지속 전망.

2001년 7월 오리산업 브리핑

오리고기 자율수매비축 단행

- 오리고기 소비위축에 따른 육용오리 체화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오리기 수매비축이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 본회는 대전유성 로얄호텔에서 가격안정 위원회를 개최, 하락세인 오리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자율적 수매비축 실시키로 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시세로는 수매비축이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장출하되지 못하는 오리는 현지 도착 생체 3kg 기준으로 육용오리 생산비 수준인 4천원에 수매키로 결의. 또한 수매비축 농가에 대해 비축출하한 물량에 대해 해당 부화장이 새끼오리 입식 물량에서 3백원 보조키로.

수매비축된 물량의 일반 시장출하를 막기 위해 협회가 관리감독하며, 비축업체는 일정 장소의 냉동창고에 보관토록 하고,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입고증 협회 제출. 수매기간은 6월 18~30일까지로 함.

오리고기 수입량 사상 최대

- 지난 5월 한달간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이 1천톤 넘어 수입이래 월별 수입량이 사상최대 기록. 이같은 수입량은 전월대비 145%, 전년동비대비 484% 증가된 양으로서, 수입개방이래 월 수입량이 1,000톤을 넘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큰 충격.

지난 5월 수입된 중국산 오리고기는 위생문제로 전량 반송조치 되었으나 상당량의 중국산 오리가 시중 유통되어 회수가 잘 안돼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됨.

전염성 간염백신 이달부터 상용화

- 오리전염성 간염백신 이달부터 상용되어 사육농가에 보급될 전망... 오리전염성 간염 백신생산 추진 중인 녹색자 수의약품 관계자는 최종 제품검정을 지난 5월말 신청했으며 6월말 전후로 검정 종료되어 7월 중 일반 사육농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치명적 경제손실을 가져온 전염성 간염 피해 줄어든 것으로 예상

전염성 간염은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다소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음.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수입량 당분간 큰 폭으로 감소 전망...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4일 HPAI 바이러스 검출된 중국산 수입 오리고기로 인해 이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 검역원은 이번 바이러스가 가금육을 통해서만 전파가능성이 낮으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차원에서 수입 및 유통금지조치 취하였다고 밝힘.

이번 조치로 회수 및 반송조치되어야 하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물량 중 오리고기는 2,971톤에 해당.